



국민의 자리에서 본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

이제 얼마 안 있어 시장에는 수입쇠고기를 비롯한 수입축산물이 자리를 잡아 갈 것이고 연말이나 내년초에는 배합사료가격이 대폭 인상될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도 배합사료 가격 인하를 위한 양축가들의 건의 사항인 관세·부가세 면제, 쿼터제 폐지, 사료원료 수입자유화 등은 오지부동이다.

”



노 영 한
(대한양돈협회 전무)

지난 여름은 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설칠 정도로 유난히도 무더웠다. 돼지가 열사병으로 쓰러지고 닭들이 폐죽음을 당하였다.

그러나 더위보다는 정부의 쇠고기 수입 재개 발표가 우리 양축농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였으며, 8백만 농민과 농촌에 뿌리를 둔 도시의 소시민을 슬프게 만들었다.

쇠고기 수입과 때를 같이해서 축협중앙회가 중심이 되어 농협, 식생활개선 범국민 운동본부와 함께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통하여 양축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축산물유통사업단을 만들었다. 우리 양축가야 양축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물 가격을 안정시켜 준다는데 그저 감사할 뿐이지만, 신문보도를 보면 축협 자체내에서도 이러한 사업은 축협이 해야 될 일인데 축협이 앞장서서 또하나의 기구를 만들어야만 하는 속사정이 그들을 슬프게 만드는 모양이다.

양축가들도 기뻐하고만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새로 생긴 유통사업단이 앞으로 양축가의 소득증대보다는 가격안정(물가당국이 원하는 가격으로 안정)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더욱 노력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TV에는 경제기획원 물가관리 담당관이 물가안정을 위해서 수입 쇠고기 방출량을 늘리고 가공식품 수입량도 늘려나가겠다고 발표하여 양축가들을 슬프게 만들고 있다.

양대 선거와 수출이 잘 되어 돈이 너무 많이 풀리어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하여 돈을 바짝 쥐고 하니 축산물 소비는 위축될 것이 뻔하다.

축산물은 이제 물가 상승의 원흉으로 몰리면서 축

“

새해에 양축가들은 쓰러질 수 밖에
없지 않는가? 그때에 가서야 책상을
“탁”하고 쳤을 뿐인데 양축가들이
“억”하고 쓰러졌다고 하겠는가?

”

산물 수입의 명분을 제공하게 되었다.

슬픔이 계속되는 축산인들에게 배합사료 가격의 10% (회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인상은 최근 콧수염을 기르고 머리에 빙거지를 쓴 가수가 울고 싶어라란 노래로 잘 대변하고 있다.

울고 싶은 축산인들. 이들을 누가 달랠 것인가?

원료사료(사료곡물, 대두박 등)의 수입을 개발하고, 사료에 관세·부가세를 없애 주고, 자가배합사료공장을 허가해 달라는데도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사료곡물 쿼터제로 인한 양축가들의 추가 부담이 2백억은 되리란 것이 계산빠른 사람들의 중론이다. 이렇고도 양축가들이 버틴 것은 그래도 지난 해에는 축산물 수입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농수산위 국회의원들과 축산관계기관의 지도급 인사들이 미국의 통상대표부(USTR)를 방문했을 때 축산물 수입개방의 압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과는 별도로 미국은 현재 이스라엘 카리브 연안제국 및 캐나다와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캐나다, 이스라엘에 이어 한국, 대만, 일본 등에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제의해 오는 등 쌍무 협정 움직임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또한, 우리 정부 입장도 중공시장 진출을 위해서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축산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혹시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

이제 새로운 여건 변화에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어야 양축가들도 국제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다.

이제 얼마 안있어 시장에는 수입쇠고기를 비롯한 수입축산물이 자리를 잡아 갈 것이고,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사료가격이 대폭 인상될 것이고, 물가안정을 위해서 돈을 죄면서 가공식품 수입을 늘려갈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관세도 부가세도 요지부동이며, 유통가공처리와 생산 분야에 간접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배합사료 가격 인하를 위한 생산자들의 각종 건의도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다.

새해에 양축가들은 쓰러질 수 밖에 없지 않는가? 그때에 가서야 책상을 “탁”쳤을 뿐인데 양축가들이 “억”하고 쓰러졌다고 하겠는가? 쓰러지기 전에 이제 금년도 4개월 밖에 남지 않았으니 조속히 조치해야 양축가들의 슬픔이 적어질 것이다.

서울 올림픽이 이제는 몇일 앞으로 닥아 왔다.

미국의 실업자를 비롯한 전세계에서 40억 인구가 TV를 통해서 한국의 화려한 면면을 보게 될 것이고, 그후에는 수입개방 압력은 더욱 높아 갈 것이 명확하다.

4조 5천억에 달하는 농가부채와 서울시에 점심을 굶는 학생이 1천여명이나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 농축산물이 수입되면 바로 이들이 피해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없으니 우리는 더욱 슬프다.

슬피해야 할 사람들끼리도 서로 반목하는 현실이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한다.*